

제 1 교시

국어 영역

출수형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관세는 국가가 수입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자국 산업 보호와 국가 재정 확보, 교역 조건의 개선 등의 목적을 지닌다. 관세는 보통 특정 상품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는 정률세나, 단위당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세 등의 방식으로 부과되며, 이러한 부과 방식은 시장 조건과 정책 목표에 따라 달라진다.

국가가 관세를 부과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자국 산업 보호다. 경쟁력이 낮은 산업이 외국산 저가 상품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외국 상품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면 자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향상된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 자국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유치 산업 보호' 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편, 관세는 무역 상대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방적인 고율의 관세 부과는 상대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으며, 보복 관세 등의 대응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교역량 감소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WTO 체제를 통해 회원국 간 협약을 체결하고, 무분별한 보호무역 조치를 자제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 질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WTO 협정에서는 회원국이 산업 보호를 위해 긴급히 관세를 인상해야 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상대국에 사전 통보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를 통해 관세 정책이 세계 무역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외국산 상품의 유입이 급증하여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국가는 '긴급 관세'(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자의적으로 사용될 경우 무역 분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WTO)는 긴급 관세에 대해 엄격한 조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먼저, 해당 국가가 관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이 조사는 독립적 기관이나 정부가 주도하여 객관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산업 피해가 확실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WTO 사무국과 무역 상대국에 사전 통보한 후, 이해 관계국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후, WTO 규정상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관세를 인상할 수 있으며, 보통 최초 발동은 4년 이내로 제한된다. 필요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되, 총 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액세는 수입 물품 단위당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 ② 유치 산업 보호 정책은 자국 산업의 성장 기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 ③ 무역 상대국의 보복 조치는 관세 부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 ④ 관세 인상은 긴급한 경우 단행 후에 상대국에 통보할 수 있다.
- ⑤ 자국 산업 보호 목적의 관세라도 국제 규범을 고려해야 한다.

2. 다음 중 WTO의 관세 규정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WTO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장기적 관세 조치를 모든 회원국에 허용한다.
- ② 긴급 관세는 향후 예상되는 심각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
- ③ WTO는 모든 관세를 비관세 장벽보다 더 강력한 규제로 본다.
- ④ 긴급 관세는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인정될 수 없다.
- ⑤ 상계관세는 WTO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 관세 조치다.

3.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M국은 최근 자국 반도체 산업 보호를 위해 K국 외국산 반도체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결정은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수입 증가로 인해 단기적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M국은 WTO 회원국 임에 따라 관세 인상 전 상대국과의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가 마무리된 후 M국은 K국 반도체에 대해 20%의 긴급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 과정에서 WTO에게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으나, M국 정부의 주도로 세이프가드 발동 후에 작성된 'K국 외국산 반도체 수입에 의한 M국 반도체 산업 피해 보고서'를 WTO에 제출하였다. 이 조치는 향후 3년간 적용될 예정이며, 산업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 ① M국은 산업 피해에 대한 조사를 거쳐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 ② M국은 WTO 절차에 따라 사전 통보 및 협의를 진행하였다.
- ③ M국의 긴급 관세는 WTO에게 사전 통보되지 않았으므로, 국제 규범상 허용되기 어렵다.
- ④ M국의 긴급 관세의 향후 연장 여부는 산업 피해의 지속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⑤ M국의 긴급 관세는 총 기간이 8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향후 장기적인 산업 개편을 위해 연장될 수 있다.

**BACKGROUND**

관세는 외국 상품이 국내로 들어올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이러한 세금은 외국 상품의 가격을 높여서 국내에서 자국 상품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관세를 너무 많이 부과하면 해당국과 갈등이 발생하거나, 오히려 자국 소비자가 더 비싼 물건을 사게 되어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회원국이 관세를 올릴 때 일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정해 두고 있다. 공정하고 안정된 각국의 무역 활동으로부터 국가 간 분쟁을 예방하고, 세계 경제의 예측 가능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현대 사회에서 공정성은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자리 잡았다. 특히 ㉠보상의 기준을 둘러싼 논의에서 공정성의 개념은 더욱 주목받는다. 예를 들어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이가 발생하거나, 성과에 비해 과도한 보상을 받는 경우 사람들은 공정하지 않다고 느낀다. 이러한 감정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보상의 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논의된다. 첫째는 능력 기준으로, 개인이 지닌 능력이나 자격, 잠재력 등을 바탕으로 보상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교육이나 자격증, 경력 등을 중시하는 현대의 인사 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둘째는 성과 기준으로, 실제로 창출된 결과에 따라 보상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이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부합하지만, 결과만 중시하는 평가는 과정의 공정성이나 환경적 요인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셋째는 필요 기준으로, 구성원의 필요 수준에 따라 보상을 차등화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사회보장제도가 있다. 필요 기준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평등을 실현하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지만, 동기 유발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처럼 각 기준은 장단점이 있으며, 단일 기준만으로 모든 상황을 해결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에서는 서로 다른 기준이 혼합되어 사용된다. 공공 부문은 필요 기준과 성과 기준의 절충을 지향하며, 민간 부문은 능력과 성과 기준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구성원 간의 협력과 공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조직문화가 확산되면서, 보상의 공정성에 대한 새로운 기준들이 등장하고 있다.

보상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떤 사회에서는 기여도보다 공동체의 안정을 중시할 수 있고, 또 다른 사회에서는 철저한 성과주의를 공정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 따라서 보상의 기준은 고정된 원칙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정되고 정립되어야 할 가치라 할 수 있다.

4.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능력 기준은 자격과 경력을 평가하여 보상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 ② 성과 기준은 과정보다 결과를 더 중시하는 기준이다.
- ③ 필요 기준은 예측 가능성을 보상의 공정성보다 더 중시한다.
- ④ 공공 부문은 필요 기준과 성과 기준의 절충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 ⑤ 보상의 기준은 고정된 원칙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5. 다음 중 ㉠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능력 기준은 동일한 결과를 내면 동일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이군.
- ② 성과 기준은 개인의 과정과 의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군.
- ③ 필요 기준은 사회적 약자의 필요 수준에 따라 보상이 달라질 수 있겠군.
- ④ 필요 기준은 보상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가장 중시하는군.
- ⑤ 성과 기준은 구성원 간의 협력과 공동체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군.

6. <보기>를 근거로 할 때,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D기업은 최근 새로운 보상 제도를 도입하였다. 기존에는 직원의 학력, 경력, 자격증 등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했으나, 변화된 제도에서는 직원이 수행한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중시한다. 예를 들어, 예상 매출을 초과 달성한 경우 추가 성과급을 지급하고, 성과가 미흡한 경우는 보상을 제한한다. 다만, 육아휴직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성과가 낮은 직원에게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보상을 일부 유지해주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 ① D기업은 현재 필요 기준을 중심으로 조직 내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
- ② D기업은 이전과 달리, 현재 능력 기준을 고수하며 성과 기준은 배제하고 있다.
- ③ D기업은 이전과 달리, 현재 능력 기준과 필요 기준 중 하나를 배제하고 있다.
- ④ D기업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성과 기준을 채택함으로써 보상의 객관성을 일부 희생하고 있다.
- ⑤ D기업은 이전과 달리, 성과 기준과 필요 기준을 혼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BACKGROUND**

보상의 공정성을 논의할 때는 다양한 기준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능력 기준은 개인의 자격과 역량을 바탕으로 평가하며, 성과 기준은 구체적인 결과물을 중심으로 보상을 결정한다. 반면, 필요 기준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기본 생계 보장을 목표로 하여 평등의 실현을 강조한다. 이처럼 각 기준은 서로 다른 가치를 반영하며 실제 사회에서는 이들 기준이 혼합된 형태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7~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지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장치로, 현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스마트폰, 노트북, 전기차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자기기가 전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며, 전지 기술의 발달은 에너지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 향상에 핵심이 되고 있다. 전지는 기본적으로 음극과 양극, 전해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사이의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 전류가 생성된다.

전지의 작동 원리는 화학 반응이다. 방전 시에는 음극에서 전자가 빠져나가 외부 회로를 통해 양극으로 이동하며,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때 전해질은 이온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여 전하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 충전식 전지에서는 전류의 방향을 바꾸어 이 반응을 되돌릴 수 있다. 이러한 가역성은 전지의 반복 사용을 가능하게 만든다.

전지 기술은 크게 1차 전지와 2차 전지로 나뉜다. 1차 전지는 한 번만 사용 가능한 일회용 전지로, 알카라인 전지나 망간 전지가 이에 속한다. 반면 2차 전지는 충전하여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전지로, 리튬이온 전지, 납축전지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2차 전지 중에서도 리튬이온 전지가 높은 에너지 밀도와 긴 수명 덕분에 각광받고 있다.

리튬이온 전지는 리튬이온이 음극과 양극 사이를 이동하면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방출한다. 방전 시 리튬이온은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하고, 충전 시에는 다시 양극에서 음극으로 돌아온다. 이 과정에서 고체 전해질 계면(SEI) 형성과 같은 복잡한 미시적 변화도 일어난다. 이러한 계면 안정성과 전해질의 특성은 전지의 수명과 안정성에 큰 영향을 준다.

전지 기술은 여전히 진화 중이다. 최근에는 고체 상태의 전해질을 사용하는 전고체 전지가 차세대 전지로 주목받고 있다. 전고체 전지는 기존 액체 전해질의 폭발 위험성과 누액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에너지 밀도도 높아 전기차의 주행 거리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리튬 대신 나트륨이나 마그네슘 등을 이용한 차세대 전지 소재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향후 전지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7. 다음 중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지는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 전류를 생성한다.
- ② 전지에서 전해질은 전자의 흐름을 담당한다.
- ③ 리튬이온 전지는 충전과 방전을 반복할 수 있는 전지이다.
- ④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전지는 폭발 위험성이 낮다.
- ⑤ 전지 성능은 전해질과 계면의 안정성에 영향을 받는다.

8. 다음은 리튬이온 전지의 충전 및 방전 과정이다. 올바른 순서로 배열한 것은?

- ㉠ 리튬이온이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동한다.
- ㉡ 외부 회로를 통해 전자가 이동한다.
- ㉢ 리튬이온이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한다.
- ㉣ 전자와 리튬이온이 서로 다른 경로로 이동한다.

㉠. 충전 시: \_\_\_ → \_\_\_

㉡. 방전 시: \_\_\_ → \_\_\_

-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 ⑤ ㉠: ㉣ → ㉢ / ㉡: ㉠ → ㉡

9. <보기>를 근거로 할 때, 다음 내용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한 실험팀은 전고체 전지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고체 전해질을 비교 실험하였다. 이 실험 결과, 이온 전도성이 높을수록 방전 효율과 수명이 모두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고체 전해질의 물리적 안정성이 높을수록 폭발 위험이 낮아졌다. 또한, 이온 전도성과 물리적 안정성 사이에는 조성에 따라 전도성은 높지만 안정성은 낮은 경우도 확인되었다.

- ① 고체 전해질의 이온 전도성이 높아질수록 전고체 전지의 방전 효율은 증가하고 수명은 감소하겠군.
- ② 전고체 전지의 방전 효율과 관계없이 전고체 전지의 폭발 위험은 높을 수 있겠군.
- ③ 이온 전도성과 물리적 안정성은 서로 비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하나가 높으면 다른 하나도 높겠군.
- ④ 전고체 전지의 성능은 이온 전도성보다는 안정성에 의해서만 결정되겠군.
- ⑤ 고체 전해질의 전도성이 낮을수록 전고체 전지의 방전 효율과 수명이 모두 증가하겠군.

#### BACKGROUND

전지는 에너지 저장 장치로서 화학적 반응을 통해 전기를 생성하는 기술이다. 리튬이온 전지는 높은 에너지 밀도와 긴 수명을 바탕으로 스마트폰과 전기차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전지의 구조와 반응 과정에 대한 이해는 성능과 안정성 향상에 필수적이다. 최근에는 전고체 전지와 같이 안전성과 효율을 동시에 갖춘 차세대 전지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